



“남자가 여자라며 여탕에... 평등법, 여성인권 침해”

바른인권여성연합, 7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갖고 성명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하 여성연합)이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작년 여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나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지 1년여 만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6월 16일 평등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하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유한 이래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법 제정에 왜 이토록 강하게 집착하는 것인가?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환호할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차별을 하지 말자는데,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 88.5%가 찬성하는 법이라고 떠들어 댈 만하지 않은가”라며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듯이 나쁜 요소들이 숨어 있으니 양의 털을 쓴 늑대와 같은 참으로 무서운 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작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는 그 법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1,500명 가량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역차별적인 법안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여기는 남성 성기를 가진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이나 사우나, 탈의실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90%에 가까운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반대하였다”며 “이것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 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연말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 20여 분간 머무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이것을 주거침입죄로 판단, 기소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며 “우리는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고, 성적 수치심, 성적 모멸감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성추행이며,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외치며, 성적체성의 혼란에 관대한 수사 시관에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했다.



“차별법-평등법 반대한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7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여성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회는 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HTV 권성윤PD

또 “일주일 전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한 여성 고객이 성전환을 하지 않은 여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찢질방 측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며 “관련 영상이 퍼지면서 LGBT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사이에 유혈충돌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항의에 나선 여성 고객이 외보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 찢질방이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다며 고객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평등법을 수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의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여성들은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은 자주 범죄에 노출되어 왔다”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아마 모든 국민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너무 끔찍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소아 성폭행 사건인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화장실이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등법 23조는 ‘상업, 공공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LA 찢질방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조두순 같은 범죄자도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여자 화장실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평등법이 통과되면 스포츠나 대학 입시, 각종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위험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평등법은 LGBT를 성별에 끼워 넣으려는 기반적 시도이며,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이라며 “이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과 정당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LGBT를 위해서 여성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민노총 집회, 코로나 확산 우려 정면 배신 행위”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비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얼마 전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를 비판하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3일 서울의 도심에서는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8000명이 모임)가 있었다. 당초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집회할 것으로 여겼던 것을 종로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한 것도 그렇고,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집회를 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은 코로나 제4차 확산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질병관리청장이 민노총을 찾아가서 자제를 요청하는데도 집회를 강행한 것은, 나라 전체와 국민이 우려하는 코로나 확산이날 확진자는 무려 794명에 이

를 우려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였다”고 했다. 또 “더군다나 민노총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이며, 하필이면 그런 주장이라도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형집회를 통해서 해야 하느냐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집회는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현 정부의 공정성 논란의 불길에다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난해, 문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당시 8.15집회 시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6명이 나왔고, 개천절에 75명, 한글날에 54명이 나왔는데도,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회 주도자들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맹비난하였다”며 “그렇다면 이번의 민노총 집회는

국가를 부정하고, 정부의 자제를 따르지 않는 ‘반국가적 행위’ 쪽으로 규정해야 격이 맞는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들을 ‘법’과 ‘원칙’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이참에 민노총이 정부 위에 군림한다는 국민의 수군거림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의 법과 원칙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에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면, 그 법률체제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그런 허술한 방식으로 국가다운 국가로 운영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민노총의 불법집회를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이것이 나라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지성호 “내가 누린 자유와 복음, 북한 주민들에게도 필요”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사진)이 지난 6일 저녁 에스더기도운동이 주최하는 통일선교 컨퍼런스 유튜브 집회에서 탈북민을 위한 기도 동참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마25:40)이란 성구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기 한 몸 지키기 힘든 현실 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 청년들의 생각은 북한 정권의 사상으로부터 많이 이탈해 있다. 북한 청년들은 오히려 서 울말을 쓰며, 남한의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에 관심이 많다”면서 “북한정권의 노력이 북한의 시장 형성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북한으로 밀려드는 남한의 문화를 저

지하고자 하는 북한정권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고 예측했다. 지 의원은 북한 청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매우 놀랐다는 경험을 소개하며 “북한 청년들의 생각은 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북한 청년들의 자유 추구가 좌절되고,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이 정체를 숨기면서 숨어 지내는 상황을 현실 정치와 연관시켜 꼬집었다. 그는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이 숨어 다니다. 지금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이 너무 친하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 탈북민 정체를 들켜 되면 강제로 북에 송환될까봐 그렇다고 하더라”며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정치권, 언론계에서는 마치 북한이 정상국가인 듯 묘사한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는 없다”며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 지 의원은 탈북민 문제에 소홀한 남한의 현 정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북한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우리가 다 품어야 한다”며 탈북민 인권 보호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자기 자신보다 국민들을 더 높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다가오는 통일시대에는 기도를 넘어 험한 땅에 가까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탈북민 하나 세우기는 북한에서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2면 문건 기자

아니! 분양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하다고?

내돈 없이도 살 수 있겠네~~ 사실이야!(시세차익 확실)

서울 중구
고품격 소형아파트
방2 + 거실1

왕십리뉴타운과
서울중심생활권을 동시에
고품격 소형 아파트(1~2인 소가구 맞춤)

GTX-C 노선 왕십리역 지정!!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은 소형 아파트!!
전용면적 14평형대(20평형 아파트)
소유 기회!!

실외 개별 팬트리 수납 공간 무상 제공
풀 퍼니스드 시스템 적용
[에어컨, 세탁기(건조겸용), 냉장고, 인덕션, 오븐 등]

» 특전 «
일부세대
계약금
대출 지원

01 2030 서울플랜 중구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7,504평)
- 서울패션혁신 허브 조성
-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02 교 통

- 2호선, 6호선 신당역 더블역세권 (도보 5분 거리)

03 생활환경

- 왕십리 뉴타운, 청계천인접
- 반경1km 신당역/신설동역/동묘암역
- 비트플러스(이마트, CGV, 워터파크)
- 동대문 쇼핑상권, 롯데백화점, 한양대병원 등

04 수 요

- 주간 인구 상주 비율 전국 1위
- 중심 업무 상권 및 도매시장 직주근접 (서울시청, 남대문, 동대문, 명동, 을지로 등)

05 교육환경

- 반경 1km내 초, 중, 고교 위치 (광희초, 신당초, 송신초, 대광중, 성동고 등)

건축개요

- 위 치 서울시 중구 황학동 1073번지 외 9필지
- 지역/지구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
- 규모 지하2층~지상 20층 오피스텔 131실
- 대지면적 1,060㎡/건축면적: 577.02㎡
- 주차대수 105대

청약 계좌번호
수협은행 1010-2015-6739
한국자산신탁(주)
(청약신청금: 100만원~미계약시 전액 환불)

상담문의

1688-2969